

제대군인 지원에 국민적 관심을 가져야...



손기문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공장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 하여 36년간의 암흑세계를 만들었고 죄 없는 부녀자를 강제로 전쟁터에 끌고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신의 고통을 안겨주고서도 입을 다물고 있고, 세계 제2차대전의 패전국의 반성도 잇는 채 또다시 침략의 마수를 서서히 내밀면서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하는 국방비, 동아시아 유일의 이지스함 보유국, 동북아에서 가장 많은 조기경보통제기 및 P-3C 해상초계기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자위대는 이름만 자위대일 뿐이지 이미 일본 본토는 물론 주변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은 117만 명의 정규 병력에다가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군에 대한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자주국방의 현대화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역이 해마다 3,000여명이상이 증가되고 있고 2020년 즈음해서는 매년 4,300여명으로 추계를 되고 있어 이는 사회문제로 대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기존의 취업, 교육, 대부, 의료, 공공시설 이용감면, 안장 등 지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과 함께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금년 4월부터는 부산, 대전에도 확대 설치하여 제대군인 지원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취업, 창업, 교육 등에 대한 복무연한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안정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군인력 감축에 따라 연초에 정부에서는 제대군인 지원대책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군인연금 대상자가 아닌 20년 이하 군 복무자에게 제대 후 6개월 동안 월50만원의 취업준비금을 지급하고 전역 전에도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 부대에서 1년 동안 정원 외로 인력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했고, 군 경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과 산림방재단, 지역안보자문단에 제대군인의 취업을 지원도 하도록 하였으며, 제대군인 지원센터도 3곳에서 5곳으로 늘려 나간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취업여건과 국민적 관심도가 낮아 원활한 취업이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군에서 양성된 우수한 고급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범국민적으로 정부는 물론, 공공부문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에서도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여 제대군인 취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하루 속히 조성하여 자유 대한민국 안보의 파수군인 군의 사기를 더욱더 진작시켜 우리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 공고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